

## 日帝治下の 行旅死亡人에 관한 文獻的 考察

원광대 신경정신과교실

최규진 · 류영수

### I. 緒 論

行旅者에 관한 用語는 대판大에서 발행된 조선어대사전<sup>1)</sup>에는 行旅者에 대한 表記가 없으며, 현재는 行旅者를 떠돌이 또는 부랑인 등의 순화된 用語로 사용하도록 행정상 勸奨하고 있다<sup>12)</sup>.

<金剛經><sup>13)</sup>에 “乞食 於其城中”이라 하여 乞士로 乞食人을 말하였고, 鄭三峰은 乞食之辨에서 無爲徒食으로 비판하였고<sup>15)</sup>, <漢書>에는 乞罔으로, <諺氏>는 乞焉乞子로 하였으며<sup>14)</sup>, 後家들은 流乞<sup>6)</sup>로 표현하였다.

流乞에 대표적인 인물은 義兵들로, 義兵들은 改姓名하거나 變裝한채 활동하여 1896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의병봉기가 일어나 왜로에 대항하였으며, 抗日義兵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柳麟錫(김두성으로 改名)은 한때 충주성을 점거하는 등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乙未義兵 蜂起이후 한반도 중·북부와 서간도 일대를 전전하면서 재기 항전의 기회를 집요하게 모색하게 되었다<sup>16,30)</sup>. 차후 이들 의병들은 국내 항전을 단념하고 새로운 항전 기지를 찾아 1908년 연해주로 북상하였던 것이다<sup>16)</sup>.

한편 김<sup>7)</sup>은 孤兒로서 걸인들은 日人에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하였다. 또 李<sup>6)</sup>는 이들 乞人들이 전국에 조직책들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당시에 流乞들이 作詞한 것으로 보여지는 타령들을 임<sup>7)</sup>은 지방에 따라 각설이 타령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을 日人들 가운데 특히

kubo<sup>2)</sup>는 인구증가와 생존 경쟁으로 정리하였고, 石<sup>18)</sup>은 蜂起, 兵役 負役등으로 인구변화가 많아져서 비롯된 현상으로 自認하고 있다. 또 金<sup>4)</sup>은 과거의 行旅者를 규정하지 않고 시대적으로 노골적인 사회질서에 違背행위에 국한한다 하였으며, 韓<sup>5)</sup>은 이들의 원인으로 社會秩序가 社會病理的인 病因으로 작용한다 하였으나 나라 잃은 시대에 乞人 즉 統計上으로 命名한 行旅病者에 대한 言及은 없었다.

이에 著者は 사랑의 결핍으로 아무 말없이 길가에 서, 다리밑에서<sup>9)</sup> 병들어 죽어간 獨立 有功者의 형제 자녀들의 行旅死亡등을 생각하여 나라 잃은 시대에 기록인 統計年報 全年을 고찰하여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한다.

### II. 研 究 方 法

#### 1. 참고문헌 및 조사방법

다음 統計年報를 1906년부터 1942년까지 年代別로 정리하여 行旅死亡人을 질환別, 지역별로 비교 고찰하여 그 결과들을 정리하였다(Table I).

Table I. 참고문헌

발생처	서명	년도	제형
통감관	통감부 통계년보	1906	우철
통감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08	우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09	우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1	우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2	우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3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4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5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6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7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8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19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0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1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2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3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4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5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6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7	좌철
총독부	조선독립운동 조사연구	1928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29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0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1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2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3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4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5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6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7	좌철
총독부	조선독립운동 조사연구	1938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39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40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41	좌철
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	1942	좌철

2. 질병분류

질병의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연구대상 질병은 전신병, 정신병, 신경계병,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운동기, 피부계통, 비뇨기, 노쇠, 중독, 신생물, 각기 등으로 국한하였다(Table II).

Table II. 疾病別 行旅死亡 分類

본연구대상 질병	질	병
전신병	전신병	임신급산
정신병	정신병	중독
신경계병	신경계병	신생물
순환기	순환기병	기생충병
호흡기	아급기부속기병	각기
소화기	이병	감모
운동기	비인후병	전염성병
피부	호흡기병	불명진단및
비뇨기	소화기병	불상원인
노쇠	운동기병	
중독	피부및 부속기병	
신생물	비뇨생식기병	
각기	외상	
	의사	
	노쇠	

III. 本 論

1. 統監府時 지역별 行旅死亡人 分布

統監府時 지역별 行旅死亡人 分布는 統計가 시작된 1906년경에는 疾患分類는 없었 으며 다만 지역별 분류 를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0년 庚戌國恥의 해에 이르러 전국적 으로 行旅人의 사망자가 집계되기 시작하였 으며 이 가운데 全羅北道의 行旅死亡人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Table III).

## 2. 나라잃은 시기 行旅死亡人の 疾患別 分布

1906년 統監府 統計와 다르게 1913년부터 細部の 疾患別로 行旅死亡人에 대한 統計가 정리됨으로써 나라 잃은 시대에 우리 민족의 哀歡과 受難을 照明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잃은 시기 行旅死亡人の 疾患別 分布에서, 中期의 전반기(1913년-1917년)에 보면 行旅 死亡人の 사망질환 分析에서 全身病이 남자 156名(38.1%), 여자 326名(39.6%)로 남녀 모두 가장 높은 頻度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서 消化器病(남자 19.6%, 여자 20.5%), 老衰(남자 14.4%, 여자 14.3%)의 順으로 나타났다.

또한 日人에 있어서도 行旅死亡人の 原因질환으로 全身病이 남자 32名(22.1%) 여자 3名(1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나 우리 민족에 비하여 發生人員의 側面에서 보면 월등하게 적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IV).

후반기(1918년-1924년)에 이르러서 行旅死亡人の 숫자가 激增함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은 남자 7709名, 여자 1410名の 行旅 死亡人이 집계되어 있다. 이 가운데 原因질환으로 전반기와 같이 全身病이 남자 30.7%, 여자 37.0%로 가장 높은 頻度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서 消化器 疾病의 順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특기할 만한 것은 死亡原因疾患의 세번째 順이 神經系 疾病으로 남자 885名(11.5%) 여자 153名(10.9%)의 빈도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日人의 神經系 疾病에 의한 死亡頻度는 呼吸器 疾病이 남자 18.9%, 여자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消化器, 全身病의 順이었다(Table IV).

이같은 사실은 1919년 前後로 한 우리민족의 3.1독립운동의 전국적인 抗日鬪爭의 역사적 事實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라잃은 시대 後期(1925년-1932년)에 이르러 전반기에는, 우리민족의 行旅人 사망원인 으로 以前時代에 비하여 消化器疾病이 남자 2005名(21.3%), 여자 404名(19.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며, 이어서 全身病과 老衰의 順으로 나타났다.

日人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呼吸器 疾病이 남자 18.1% 여자 22.7% 등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Table IV).

한편 時代的으로 살펴볼때는 1928년에 이르러 남자 2254名 여자 523名으로 우리민족에 行旅死亡人の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以前時代보다 行여 사망인 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우기 이 시대에는 精神疾患에 의한 行旅死亡者도 남자 364名 여자 161名으로 以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IV).

후반기에 있어서는 전반기에 비하여 우리 민족이 行旅 死亡人の 人員은 8251名으로 전반기의 9119名에 비교하여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疾病分類에 있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消化器 疾病이 남자 21.3%, 여자 19.3%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全身病, 老衰順이었다(Table IV).

總括적으로 1913년부터 1932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의 行旅死亡人の 原因疾患 分類에 있어서 해마다 行旅死亡人の 숫자가 급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사망원인 질환으로는 全身病 이 남자 6883名으로 전체의 24.4%, 여자 1487名으로 26.4%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消化器疾病, 老衰順이었다.

한편 精神, 神經系 疾患에 의한 死亡에 있어서도 神經系 疾病은 남자가 10.8% 여자가 11.3% 이었으며, 精神 病은 남자가 2.8% 여자가 5.9%의 빈도수를 보였다.

## 3. 나라잃은 시기 行旅死亡人の 地域別 分포

1932년 이후 1943년까지 行旅死亡人에 대한 地域別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京畿道가 남자 16.7% 여자 14.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慶尙南道, 全羅南道, 全羅北道, 忠淸南道 등 전국적으로 行旅死亡人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V).

Table III. 統監府시 地域別 行旅死亡 分布

년도	구분	성별	행역사망인														(계)			
			행역 사망 인	구호 중 사망	전치	부산	경성	인천	평양	진남 포	원산									
1906		남 여	21 2	43 3	52 7	5 1	9 1	2 -	- -	2 -	3 -					21 2				
1907						부산	마산	군산	경성	인천	평양	원산	대구	신의	청진					
	남 여	32 12	35 11	45 6	5 5	1 -	- -	9 3	1 -	12 3	1 3	- -	- -	- 1	- -	29 15				
1908						부산	마산	군산	경성	인천	평양	원산	대구	의주	청진					
	남 여	21 4	50 9	43 9	7 2	5 -	- -	- -	1 1	2 1	4 -	- -	2 -	- -	- -	21 4				
1909						부산	마산	군산	목포	인천	평양	원산	의주	청진						
	남 여	25 8	22 4	17 2	14 6	2 -	- -	- -	5 -	1 -	1 1	1 -	1 1	- -	25 8					
1910					경기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황해 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강원 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계		
	조선인	남 여	156 18	14 3	14 1	29 6	4 -	2 -	51 6	9 -	8 1	4 -	22 1	9 2	9 2	8 -	1 -	156 18		
	내지인	남 여	38 6	54 6	61 9	13 1	- -	- -	- -	- -	5 1	9 2	- -	10 2	1 -	- -	- -	38 6		
	외국인	남 여	2 -	1 -	- -	2 -	- -	- -	- -	- -	- -	- -	- -	- -	- -	- -	- -	2 -		
1911					경기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황해 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강원 도	함경 남도	함경 북도	계		
	조선인	남 여	389 64	42 13	26 7	58 3	8 -	17 4	54 12	46 4	31 11	51 4	44 10	29 3	18 3	19 2	6 1	4 -	385 57	
	내지인	남 여	41 6	42 5	51 2	25 3	- -	- -	- -	3 5	- -	8 -	4 -	1 -	- -	- -	- -	41 8		
	외국인	남 여	3 -	2 -	- -	5 6	- -	- -	- -	- -	- -	- -	- -	2 -	- -	- -	- -	7 6		
1912																				
(계)	남 여	644 108	206 43	197 32																

Table IV. 總督府時 疾患別 行旅死亡分布

			행여사망원인														
			총계	년계	전신 병	정신 병	신경 계병	순환 기	호흡 기	소화	운동	피부	비뇨 기	노쇠	중독	신생 물	각기
1913	한인	남	118	716	253	11	19	35	47	138	7	26	9	149	8	-	14
		여	19	85	34	-	3	1	1	16	3	4	2	20	1	-	-
	일인	남	84	33	13	-	1	1	10	5	2	1	-	-	-	-	-
		여	16	2	1	-	-	-	1	-	-	-	-	-	-	-	-
1914	한인	남	253	978	414	8	51	43	77	183	2	19	2	146	9	-	24
		여	36	164	51	3	14	6	8	35	-	2	-	39	2	-	4
	일인	남	122	20	7	2	-	-	2	5	1	-	-	-	1	-	2
		여	30	5	1	1	2	1	-	-	-	-	-	-	-	-	-
1915	한인	남	280	785	215	7	39	65	57	184	5	19	6	161	15	-	12
		여	66	161	41	-	3	14	9	58	-	3	1	28	1	-	3
	일인	남	119	26	4	3	1	5	3	3	-	1	2	-	1	-	3
		여	19	1	-	-	-	1	-	-	-	-	-	-	-	-	-
1916	한인	남	253	357	37	8	50	39	42	83	5	3	11	55	9	3	12
		여	46	66	5	3	11	6	2	22	-	1	2	12	-	1	1
	일인	남	115	19	4	1	-	4	-	5	-	-	1	1	-	-	3
		여	25	5	1	-	1	-	-	-	-	-	1	1	-	-	1
1917	한인	남	310	1283	650	18	100	36	87	219	10	22	34	80	4	4	19
		여	90	348	195	13	31	5	13	38	-	8	19	19	1	-	6
	일인	남	107	47	4	5	6	4	7	12	-	1	2	1	1	1	3
		여	16	3	-	-	-	-	-	1	-	-	1	-	-	-	1
소계	한인	남	1214	4119	1569	52	259	218	310	807	29	89	62	591	45	7	81
		(%)			38.1	1.3	6.3	5.3	7.5	19.6	0.7	2.2	1.5	14.4	1.1	0.2	2.0
		여	257	824	326	19	62	32	33	169	3	18	24	118	5	1	14
	일인	(%)			39.6	2.3	7.5	3.9	4.0	20.5	0.4	2.2	2.9	14.3	0.6	0.1	1.7
		남	547	145	32	11	8	14	22	30	3	3	5	2	3	1	11
		(%)			22.1	7.6	5.5	9.7	15.2	20.7	2.1	2.1	3.5	1.4	2.1	0.7	7.6
여	106	16	3	1	3	2	1	1	-	-	2	1	-	-	2		
(%)			18.8	6.3	18.8	12.5	6.3	6.3	-	-	12.5	6.3	-	-	12.5		

				행여사망인													
		총계	년계	전신 병	정신 병	신경 계병	순환 기	호흡 기	소화	운동 기	피부	비뇨 기	노쇠	중독	신생 물	각기	
1918	한인	남	313	1568	803	41	108	46	162	208	4	2	87	72	10	3	22
		여	61	313	205	11	11	8	20	30	-	2	9	17	-	-	--
	일인	남	59	48	9	3	5	6	7	9	-	2	3	-	1	-	3
		여	11	6	2	3	1	-	-	-	-	-	-	-	-	-	-
1919	한인	남	283	1085	514	19	81	56	107	145	8	15	50	46	16	6	22
		여	62	207	103	1	16	9	17	25	1	3	8	15	-	-	9
	일인	남	65	29	4	1	-	2	9	3	1	-	2	-	1	1	5
		여	6	5	-	-	3	-	1	-	1	-	-	-	-	-	1
1920	한인	남	229	890	412	15	98	49	93	95	1	10	33	62	10	-	12
		여	58	172	100	5	23	6	18	14	2	1	8	11	1	-	3
	일인	남	37	29	3	1	8	2	5	3	-	-	3	-	2	-	2
		여	9	7	1	-	1	1	3	1	-	-	-	-	-	-	-
1921	한인	남	330	738	183	14	86	119	76	88	12	13	27	80	23	-	17
		여	54	108	37	4	6	12	5	21	1	1	5	15	-	-	1
	일인	남	38	20	3	1	-	3	2	6	1	-	1	-	3	-	-
		여	11	5	2	-	2	1	-	-	-	-	-	-	-	-	-
1922	한인	남	372	1018	147	37	152	65	96	215	11	61	34	129	33	2	36
		여	91	180	28	12	25	8	15	25	1	15	13	28	3	-	7
	일인	남	48	28	7	2	4	2	2	2	1	1	-	-	2	-	5
		여	15	2	-	-	-	-	-	-	-	-	1	1	-	-	-
1923	한인	남	438	945	116	25	158	60	109	219	13	35	31	111	25	1	42
		여	103	191	19	13	38	19	10	35	-	5	10	36	4	-	2
	일인	남	55	27	4	-	-	3	6	6	1	-	2	1	2	-	2
		여	19	2	-	-	-	1	-	-	-	-	1	-	-	-	-
1924	한인	남	574	1465	194	49	202	93	169	331	12	48	52	243	51	1	20
		여	135	219	29	15	34	12	18	39	3	4	10	50	5	-	1
	일인	남	66	25	2	-	4	1	8	5	-	-	-	4	1	-	-
		여	29	18	-	4	1	-	4	6	-	-	-	1	1	-	1
소계	한인	남	2539	7709	2369	200	885	488	812	1301	61	184	314	743	168	13	171
		(%)			30.7	2.6	11.5	6.3	10.5	16.9	0.8	2.4	4.1	9.6	2.2	0.01	2.2
	여	564	1410	521	61	153	74	103	189	7	31	63	172	13	-	23	
	(%)			37.0	4.3	10.9	5.3	7.3	13.4	0.5	2.2	4.5	12.2	0.9	-	1.6	
일인	남	368	206	32	8	21	19	39	34	4	3	11	5	12	1	17	
	(%)			15.5	3.9	10.2	9.2	18.9	16.5	1.9	1.5	5.3	2.4	5.8	0.5	8.3	
	여	100	44	5	7	8	3	8	7	1	-	2	2	1	-	1	
		(%)			11.4	15.9	15.2	6.8	18.2	15.9	2.3		4.6	4.6	2.3		2.3

一日帝治下の 行旅死亡人에 관한 文獻的 考察一

				행여사망인													
			총계	년계	전신 병	정신 병	신경 계병	순환 기	호흡 기	소화	운동 기	피부	비뇨 기	노쇠	중독	신생 물	각기
1925	한인	남	750	1771	281	66	217	151	219	333	21	35	66	298	60	2	2
		여	194	369	70	35	48	19	36	49	10	13	9	72	8	-	-
	일인	남	85	41	5	1	2	-	5	4	1	1	2	-	2	-	18
		여	27	9	2	-	-	-	1	2	-	-	-	-	1	-	3
1926	한인	남	747	1740	324	74	182	92	185	368	22	79	63	294	49	5	23
		여	193	369	68	29	49	20	16	77	-	15	15	71	6	2	1
	일인	남	48	29	2	1	2	-	9	7	-	-	1	-	3	-	4
		여	11	2	-	1	-	-	-	-	-	-	1	-	-	-	-
1927	한인	남	879	1820	467	96	229	175	141	412	31	98	75	8	53	-	35
		여	229	430	89	41	57	40	27	90	11	12	15	39	8	-	1
	일인	남	73	38	4	2	5	7	8	3	-	-	1	1	4	1	2
		여	13	5	-	-	1	2	2	-	-	-	-	-	-	-	-
1928	한인	남	816	2254	416	82	320	212	182	472	23	61	36	352	66	-	32
		여	206	523	115	35	105	31	27	98	7	9	13	67	9	-	7
	일인	남	67	45	6	3	12	5	6	5	-	-	1	2	1	-	4
		여	18	6	1	1	1	1	2	-	-	-	-	-	-	-	-
1929	한인	남	830	1829	324	46	233	161	158	420	20	33	26	355	35	7	11
		여	248	400	86	21	35	26	33	90	6	7	10	81	2	1	2
	일인	남	94	18	3	-	1	-	3	8	-	-	-	-	1	-	2
		여	20	-	-	-	-	-	-	-	-	-	-	-	-	-	-
소계	한인	남	4022	9434	1812	364	1181	791	885	2005	117	326	266	137	263	14	103
		(%)			19.2	3.9	12.5	8.4	9.4	21.3	1.2	3.5	2.8	13.9	2.8	0.2	1.1
		여	1070	2091	428	141	294	136	139	404	34	56	62	330	33	3	11
	일인	남	367	171	20	7	22	12	31	27	1	1	5	3	11	1	30
		(%)			11.7	4.1	12.9	7.0	18.1	15.8	0.6	0.6	2.9	1.8	6.4	0.6	17.5
		여	89	22	3	2	2	3	5	2	-	-	1	-	1	-	3
(%)			13.6	9.1	9.1	13.6	22.7	9.1	-	-	4.6	-	4.6	-	13.6		

				행여사망인													
			총계	년계	전신 병	정신 병	신경 계병	순환 기	호흡 기	소화	운동 기	피부	비뇨 기	노쇠	중독	신생 물	각기
1930	한인	남	926	2033	352	88	223	129	155	445	20	54	27	452	56	-	32
		여	294	399	72	16	40	25	31	76	1	6	6	106	13	-	7
	일인	남	90	29	2	2	4	3	6	7	-	-	-	2	1	-	2
		여	26	5	-	-	-	1	4	-	-	-	-	-	-	-	-
1931	한인	남	899	2265	333	47	243	245	136	624	16	92	47	363	88	4	27
		여	388	427	47	18	49	41	33	113	3	13	14	82	11	-	3
	일인	남	121	22	2	1	1	3	5	3	-	1	-	3	3	-	-
		여	19	4	-	1	-	1	-	-	-	-	-	-	2	-	-
1932	한인	남	961	2644	448	50	241	182	199	597	12	79	61	537	154	3	81
		여	334	493	93	20	37	29	39	115	3	8	22	111	14	-	2
	일인	남	127	30	4	1	7	3	2	5	-	-	1	1	4	-	2
		여	28	5	-	1	-	2	1	-	-	-	-	-	1	-	-
소계	한인	남	2786 (%)	6942	1133	185	707	556	490	1666	48	225	135	1352	298	7	140
		여	1016 (%)		212	54	126	95	103	304	7	27	42	299	38	-	12
	일인	남	81	1319	8	4	12	9	13	15	-	1	1	6	8	-	4
		여			99 (%)	-	2	-	4	5	-	-	-	-	3	-	-
총계	한인	남	10561 (%)	28204	6883	801	3032	2053	2497	5779	255	824	777	3993	774	41	495
		여	2907 (%)		1487	295	635	337	378	1066	51	132	191	919	89	4	60
	일인	남	603	92	30	63	54	105	106	8	8	22	16	34	3	62	
		여		394 (%)	11	12	13	12	19	10	1	-	5	3	5	-	6

Table V. 總督府時 地域別 行旅死亡人 分布

				행여사망인분포													
		총계	년계	경기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황해 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강원 도	함경 북도	함경 남도	
1933	한인	남	1461	3879	470	163	284	385	478	293	503	234	161	147	432	244	85
		여	439	790	88	44	71	64	123	128	97	41	25	28	48	23	10
	일인	남	114	51	17	-	1	2	-	2	19	-	1	1	2	1	5
		여	35	17	3	-	1	-	-	1	7	-	-	1	-	-	4
1934	한인	남	1451	3773	453	118	310	343	398	398	447	274	27	198	405	281	121
		여	456	747	83	33	62	95	127	105	91	22	27	16	55	25	6
	일인	남	92	41	15	1	2	-	2	4	7	-	1	-	2	-	7
		여	20	10	4	1	-	-	-	1	3	-	1	-	-	-	-
1935	한인	남	1607	4078	389	139	289	372	522	399	486	249	163	157	460	328	125
		여	606	840	67	42	58	67	152	118	104	29	36	34	64	46	23
	일인	남	110	33	7	1	4	1	3	-	8	-	1	3	-	2	3
		여	22	8	2	-	-	-	-	1	4	-	-	-	-	-	1
소계	한인	남	4519	11730	1312	420	883	1100	1398	1090	1436	757	351	502	1297	853	331
		여	1501	2377	238	119	191	226	402	351	292	92	88	78	167	94	39
	일인	남	316	125	39	2	7	3	5	6	34	-	3	4	4	3	15
		여	77	35	9	1	1	-	-	3	14	-	1	1	-	-	5
1936	한인	남	1563	4228	520	136	320	384	415	442	491	229	206	149	471	319	146
		여	582	1083	114	81	65	73	113	177	178	47	51	46	88	38	12
	일인	남	125	68	14	-	1	1	-	14	17	-	8	-	2	5	6
		여	28	8	2	-	1	-	-	2	2	-	1	-	-	-	-
1937	한인	남	1364	3763	552	142	310	332	288	349	392	206	211	203	427	229	122
		여	620	944	207	32	51	71	84	140	86	37	41	32	116	36	111
	일인	남	110	72	42	-	-	-	-	1	8	3	3	2	1	7	5
		여	35	3	1	-	-	-	-	1	-	-	-	-	-	-	1

			행여사망인분포														
			총계	년계	경기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황해 도	평안 남도	평안 북도	강원 도	함경 북도	함경 남도
1938	한인	남	1381	3016	465	111	214	273	258	300	372	177	244	139	243	316	120
		여	481	735	94	28	39	51	84	109	67	40	47	23	33	100	20
	일인	남	96	31	1	-	2	-	-	4	11	-	5	2	2	3	1
		여	23	7	-	-	1	-	-	-	1	-	-	-	5	-	-
1939	한인	남	1689	4049	852	124	362	346	246	365	367	228	261	133	359	293	113
		여	546	661	122	25	72	69	43	102	49	20	62	18	25	38	16
	일인	남	78	37	11	-	1	-	-	3	11	-	4	-	1	3	3
		여	21	5	2	-	-	-	-	-	1	-	1	-	-	-	1
1940	한인	남	1998	3822	1009	107	385	243	195	265	294	160	264	130	371	276	123
		여	637	610	126	23	56	34	58	81	64	32	48	15	23	29	21
	일인	남	67	36	4	-	1	-	1	-	5	-	18	2	-	2	3
		여	9	8	2	-	-	-	-	-	-	-	6	-	-	-	-
1941	한인	남	7376	2645	537	69	156	114	171	236	193	146	231	85	282	266	159
		여	437	495	96	19	32	33	36	99	26	23	46	3	33	29	20
	일인	남	46	61	4	1	10	1	2	2	-	3	5	1	-	24	8
		여	20	19	1	-	3	-	-	-	-	-	-	-	-	3	3
1942	한인	남	2177	3271	735	75	248	165	221	227	294	156	281	104	277	188	311
		여	632	606	106	21	73	24	62	70	55	21	59	13	31	24	47
	일인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소계	한인	남	17548	24137	4670	764	1995	1857	1794	1361	2403	1291	1548	943	1530	1887	1094
		(%)			19.4	3.2	8.3	7.7	7.4	5.6	10.0	5.4	6.4	3.9	6.3	7.8	4.5
		여	3935	5134	865	229	388	355	480	778	525	220	354	150	349	294	147
	(%)			16.9	0.02	7.6	6.7	9.4	15.2	10.2	4.3	6.9	2.9	6.8	5.7	2.9	
	일인	남	522	305	76	1	15	2	3	24	52	6	43	7	6	44	26
		(%)			24.9	0.3	4.9	0.7	1.0	7.9	17.1	2.0	14.1	2.3	2.0	14.4	8.5
여		136	50	8	-	5	-	-	3	4	9	8	-	5	3	5	
(%)			16.0	-	10.0	-	-	6.0	8.0	18.0	16.0	-	10.0	6.0	10.0		
총계	한인	남	22067	35867	5982	1184	2878	2597	3192	2451	3839	2048	1899	1445	2827	2740	1425
		(%)			16.7	3.3	8.0	8.2	8.9	9.5	10.7	5.7	5.3	4.0	7.9	7.6	4.0
		여	5436	7511	1103	348	579	581	882	1129	817	312	442	228	516	388	186
	(%)			14.7	4.6	7.7	7.7	11.7	15.0	10.9	4.2	5.9	3.0	6.9	5.2	2.5	
	일인	남	838	430	115	3	22	5	8	30	86	6	46	11	10	47	41
		(%)			26.7	0.7	5.1	1.2	1.9	7.0	20.0	1.4	10.7	2.6	2.3	10.9	9.5
여		213	85	17	1	6	-	-	6	18	9	9	1	5	3	10	
(%)			20.0	1.2	7.1	-	-	7.1	21.2	10.6	10.6	1.2	5.9	3.5	11.8		

#### IV. 考 察

거지는 지역에 따라 方言으로 걸버시(경상도, 강원도), 거러지(경상도, 강원도), 거러시(경상도), 거렁이(경상도), 꺼렁배·거렁뱅이·비렁뱅이·비렁배(함경도), 거렁이·비렁배에·流焉·流乞·걸뱅이(충청도), 걸버시(강원도, 경상도), 걸부생이(강원도), 걸방생이(경상도) 등으로 稱한다<sup>1)</sup>.

이들을 行旅者라 하며 또는 行旅病者·行旅病者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거지는 行旅病者 로만 구분하기는 힘들다.

Kubo<sup>2)</sup>는 行旅者의 發生動機를 文明과 人口增加 次元에서 바라보았으며 특히 文明이 발전 할수록 또는 生存競爭이 심할수록 行旅者가 증가한다 하였다.

그러나 르네듀브<sup>3)</sup>는 臨牀的인 관찰을 통해 4%만이 營養不足의 증후를 보였으며 X선 검사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骨格도 석회화되었고, 여자들의 경우 授乳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어린이는 거의 성장률이 같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같은 사실은 낮은 영양 섭취에 의한 생리적인 적응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하였다.

또한 한등<sup>5)</sup>은 非行 및 犯罪行爲 원인으로 體質的 特性, 遺傳的 素因 및 模倣理論으로 環境要因 등 文化的 關係理論을 인용하였다.

한편 김등<sup>4)</sup>은 1980년대 초 조사한 자료에서 行旅者를 노골적인 사회질서 위배행위자 보았고, 李<sup>6)</sup>는 나라잃은 당시에 行旅者를 流乞이라 칭하였으며 한편으로 이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金<sup>7)</sup>은 日人의 虐殺에 의해서 乞人이 발생한다 하였으며, 임<sup>17)</sup>은 乞人들이 作詞한 것으로 보이는 타령들을 지방에 따른 각설이 타령을 정리하였다.

이같이 걸인이 발생하게된 상황은 時代的으로 사회질서에 노골적으로 違背되는 行爲로 局限되어 있다기 보다는 社會秩序가 주요한 社會病理的인 病因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著者는 사랑의 걸핍으로 아무말없이 다리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行旅者들을 생각하며 나라잃은 시대에 統計年報를 考察하여 行旅者들의 死亡을 정리하여 照明하여 보고자 한다.

歷史를 연구한다는 것은 史料를 통하여 과거의 사실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事後的인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豫測하는 것은 事前的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史料들의 바다에 우리의 主觀을 투입하여 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어떤 一般化를 시도할 수 있다 하였다<sup>20)</sup>. 따라서 본 연구의 範疇에서도 우리나라의 汚辱으로 얼룩진 과거를 부분적으로 引用하여 그 背景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柳<sup>20)</sup>는 나라 잃었던 시대를 3期로 구분하여, 前期는 義兵活動期(1894-1914)로, 中期를 학생운동 및 國運동기(1915-1925)로, 後期를 정책반대 및 항일운동기(1926-1945)로 구분하였던 바, 통계상 정리를 全 3期로 구분한다는 것은 각각 해당시기에 사항들이 통계자료상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앞에서 구분한 4개 그룹으로 정리하였다(Table III, IV, V)

##### 1. 의병 활동기(1895-1912)

義兵활동기는 前·中·後期의 의병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활발한 의병 활동이 전개되는 한편으로 救國教育運動이 진행되면서 經濟凋敝의 나라잃은 슬픔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1896년에 倭擄內閣이 들어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잔혹한 統制를 가하게 되어 당시 감옥에는 受刑者들이 수용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르게 되었다<sup>20)</sup>.

특히 이 시기에는 나라가 기울어지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의병활동이 왕성하였던 바(이른바 乙未義兵), 의병장 유의암<sup>30)</sup>은 “檄文에서 환승을 겁박하고 衣冠文物을 廢棄하고 斷髮文身을 강요하며 變化習而를 굴욕으로 強壓하였으니 萬古에 大變이요 千秋의 恥辱이라 총궐기하라, 八道의 동포 및 義勇志士는 正心合力하여 大義名分으로 無道殘惡한 倭賊을 討伐하여……” 라 하였으며, 안중근<sup>31)</sup>은 “東洋大勢 생각하매 아득코 어둡구나! 뜻있는 사나이 편한 잠을 어히 자리오” 라 한탄하였으며, 忠州府를 점거한 柳麟錫<sup>32)</sup>은 乙未義兵활동에 있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어 전국 義兵들을 고무시킨 사건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성명회를 통하여 일본측의 무자비한 暴力과 敵對行爲에 대한 항의를 유럽 여러 강대국과 미국 및 중국

에 제기하였으며, 1908년 전반기에 北上한 이후에는 안중근과 일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투쟁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6)</sup>

江原道 高城지방에서는 일본군이 의병을 搜索하다가 주민들에게 그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자 村民 7名을 虐殺하여 市街에서 斬首하기도 하였다. 또 부근 마을에서는 의병을 搜索하다가 村民 2名을 銃殺하여 屍體를 숲에 넣고 끊어 많은 사람에게 그 骨肉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의 殘惡無道한 것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原州에서는 義兵혐의자로 수명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割腹脫皮한 후 그것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웃는가 하면, 다른 한 지방에서는 義兵을 잡지 못하자 居民 수백명을 모아 僻地에 구덩이를 파고 半身이 나오도록 세운 다음에 刈草하듯이 목을 베고 서로 웃어대기도 하였다<sup>37)</sup>고 한다.

이와같이 義兵을 討伐하는 과정에서 日本軍은 非人道的인 만행을 자행하여 이같은 사실이 나라밖으로 알려지게 되어 國際問題로 飛火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한 예로 당시의 義兵활동을 取材하고 돌아간 英國의 記者인 F.A. Mckenzie<sup>37)</sup>는 『韓國의 悲劇』 (The tragedy of Korea) 에서 일본군의 殘惡無道한 行爲에 대하여, “日本軍은 義兵의 負傷者 全部와 降伏者 全部를 常習的으로 죽였음이 판명되었으며, 또한 日人은 곳곳에서 가옥을 불태웠을 뿐아니라 의병을 도왔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없이 射殺하였다” 한다.

義兵活動의 中期(1904-1907)에는 상대적으로 의병활동이 散發的으로 이루어졌지만 義烈士의 투쟁은 계속되었으며, 나라의 患亂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儒生들이 뜻을 함께하여 同參하게 되었다.

의병활동의 後期(1907-1914)에 접어들어 庚戌國恥에 이르자 전국적으로 義兵 蜂起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倭虜와 附倭人들에 대한 보안법, 보안규칙, 인력거 취재규칙, 집회취재법, 치안유지법 등을 制定<sup>38)</sup>하여 민족의 抗日運動을 제지하면서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과 만행이 數的으로 늘어가게 된다.

이와같이 乙未義兵의 收拾主體는 완전히 日本人이었고, 基本對策은 超強硬策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實踐方法으로는 殘惡하고 野蠻的인 탄압방법이 주된 방법이

었다.

그러므로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까지 만 4년동안에 年人員 140,838명의 義兵이 抗日武力鬪爭에 참여한 결과 戰死者는 17,727명, 負傷者는 3,706명이었으며, 일본군은 戰死者 133명, 負傷者 275명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엄청난 우리민족의 損失을 가져오게 되었다<sup>40)</sup>.

결국 이시대의 거렁뱅이들을 예로의 視覺에서 行旅者로 分類하여 단순 救護對象者로 취급하여 外形上의 구호만을 실시하였지만, 金<sup>7)</sup>의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부모들이 對日 抗爭으로 일본헌병과 싸우다 흉탄에 맞아 세상을 뜨게 되면서 거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行旅者는 對日義兵活動의 부산물로서, 金<sup>36)</sup>은 당시의 義兵活動은 1896년 乙未義兵과 1907년의 丁未義兵이 주축을 이루다 1910년이후 의병활동은 점차 퇴조하고 있다. TableIII에서와 같이, 1907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行旅死亡者의 記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以前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行旅人의 死亡者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의 裏面에는 1907년 7월 31일에 군대해산 조치가 발효되면서 전국각지에서 의병봉기(丁未의병)가 일어나 1909년까지의 義兵戰死者는 167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해 12월에는 전국 각지의 義兵이 양주에 집결하여 13도 義兵 총대장에 李麟榮을, 군사장에 許蔭를 推戴 하는 등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緣由<sup>36)</sup>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1910년에서 1911년에 걸쳐 行旅死亡者의 수가 급격하게 增加하게 되는 사실 또한 의병활동 등에 의한 당시의 시대적인 病因의 결과와도 유관하다 사료된다.

즉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의 시작으로 나라의 주권이 예로에게 넘어가는 과정속에서 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일제에 나름대로 저항하는 과정속에서 誘發되는 社會構造의 變革期에 많은 行旅者들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死亡者도 월등하게 증가하였으리라 推定되어진다.

특히 1911년에는 前年度에 비해 黃海道에서 급격하게 행여 사망자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Table III), 이같은 까닭으로 1911년 1월 예로들에 의해 황해도 일대의 민족주의자 들에대한 總檢舉를 시작하여 이른바 新民會사건, 安岳사건, 105人사건 등을 통해 수많은 동

포들이 왜로들에 의해 갖은 고문과 탄압을 받은 결과<sup>36)</sup>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급격한 행여자들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같은 사실은 金<sup>7)</sup>이 “아버지는 당시 일본놈의 압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고 했다… 중략

나를 낳아 안고 피난길에 오르자마자 잠복해 있던 일본헌병들이 덮쳤다. 아버지는 그날 일본헌병들과 싸우다가 결국 일본헌병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듣자 울분이 치솟았다… 중략

어머니와 아버지 그녀의 오빠 일가족이 일인들의 손에 죽고 간신히 자기 혼자서 살아남게 되었으며 친척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그녀를 김씨가 데리고 왔다고 했다…” 등의 기록에서도 당시의 行旅人의 내력을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나라잃은 시대의 中期(1913-1924)

이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점차로 의병활동이 쇠퇴해지면서 國外에서 獨立運動團體의 結成 과 國內에서는 救國教育運動 및 學生運動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民族運動의 희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수 있다.

당시에 用語使用을 살펴보면, 1913년 統計年譜 역시 왜로들 자신들을 우선으로 앞세우고 나라잃은 民族인 우리는 다음순으로 취급하여 왜로들 자신들을 內地人 또는 文明人이라는 代名詞를 계속 사용했다.

이시대 전반기에는 주로 1917년과 1924년에 많은 행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17년에 우리민족 男子 行旅死亡人은 1283名으로 전반기의 30.1%를 차지하고 있는 점 (Table IV)은 이때 간도지방의 한국인에 대한 警察權이 중국관현으로부터 일본관현으로 이관된 사실과 유관하며, 아울러 그해 10月 광복단에서 각지의 富豪들에게 國權回復 運動 자금을 요구하는 通告文을 보냈다가 발각되는 이른바 “光復團事件”<sup>36)</sup>이 발생하여 왜로들을 자극한 것이 수많은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행여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행여사망자의 疾患別 分布를 살펴보면, 남자가 全身病으로 인한 사망자가 1569名 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消化器病이 807名 (19.6), 老衰 591名(14.4%)의 順으로 여자 또한 이와 일치하는 順이었다(Table IV).

이같이 行旅死亡의 가장 큰 원인으로 老衰보다는 全身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원인 으로 老衰에 의한 自然死라기 보다는 당시의 왜로에 의한 탄압속에서 精神的, 肉體的 機能 장애에 의한 事故死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論據로 당시 日人 行여 사망자의 全身病의 死亡比率이 22.1%로 韓人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음에서도 미루어 이해할 수 있다.

후반기에 이르러 전반기에 비해 행여사망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18년, 1919년 및 1924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행여사망인이 통계처리 되어 있다 (TableIV).

이는 1918년 1919년의 역사적인 3.1독립운동사건과 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되며, 1924년에 행여인이 증가한 원인중의 하나는 당해년에 全南 무안군과 黃海道 載령군등에서 대규모 小作爭議運動<sup>36)</sup>이 일어나는 등 전국적인 小作爭議餘波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더우기 이시대 또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男女行旅死亡人의 疾患分布는 全身病이 2369名(30.7%)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편이나, 특기할 만한 것은 神經系疾病의 비율이 11.5%의 높은 빈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중의 하나는 당시의 열화와 같았던 독립운동에 대한 日警의 무자비한 拷問과 彈壓의 결과로 神經系統 疾患이 많이 증가된 연유에서 비롯됨으로 사료된다.

이같은 說明의 근거로 같은 期間의 日人行旅者의 死亡原因으로 全身病(15.5%) 보다는 呼吸器病(18.9%)과 消化器病(16.5%)順으로 全身病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하겠다.

## 3. 나라잃은 시대의 後期(1925-1932)

國內外的으로 抗日獨立鬭爭으로 왜로들은 치안이 힘들게 되자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治安維持法을 발동하

여 內亂罪란 名目으로 制裁가 甚해지면서 드디어 抗日 6.10 萬歲運動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시대 전반기(1925년-1929년)에 있어서 行旅死亡人의 수가 나라잃은 시대 中期의 매년 統計보다 증가하며 9434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男子行旅者의 死亡원 인으로 消化器 疾患의 빈도가 2005名の 전체 21.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어서 全身病으로 인한 死亡 順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IV).

이같은 사실은 당시 사회가 전반적으로 食糧事情과 有關함으로, 특히 이 당시에는 왜로에 의한 食糧收奪이 극심하여 1922년 黃海道 載寧郡 北粟面에서 東拓 小作 農民 10000 餘名이 東拓이 水害負擔을 소작인에게 轉嫁하여 餓死지경에 이르렀다<sup>36)</sup> 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더우기 1928년에 이르러 行여사망인의 수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이와같은 時代狀況과 密接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1928년에 이르러 治安維持法이 改定되어 思想運動 團束을 강화하여 以後 10개월동안에 3천여명을 검거하는 등 전국을 恐怖의 지경으로 몰고가는 時局狀況이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과 그의 자녀들을 行旅者로 轉落되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반기(1930년-1932년)에 이르러서는, 전반기에 비하여 行旅死亡人의 수가 약간 減少 하여 전체 8261명을 나타내고 있으나 死亡原因을 分析하여 보면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消化器疾患으로 인한 死亡者가 1666명으로 전체 2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후반기에서도 나라잃은 백성들이 食糧문제로 일어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1933년 統計에 對日 米穀輸出이 總生産高의 절반을 초과하여 1819만석 중 943만석을 일본에 輸出하게 되었으며, 소작조정령이 실시된 이래 小作爭議事件이 642건으로 以前の 304건에 비해 크게 격증하게 되었다<sup>37)</sup> 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우리 백성들이 食糧問題가 전국적인 問題로 飛火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行여인의 사망질환에도 소화기 질환이 가장 중요한 원인질환 으로 등장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같이 總督府시절 行旅死亡人의 疾患別 分布를 總括하여 보건데, 統計가 시작된 1913년以來 전체적인 行旅死亡人의 수가 해가 갈수록 激增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原因分析에서 初期에는 義兵活動에 대한 왜로탄압으로 因하여 全身病(24.4%)의 原因에 의한 死亡者가 主從을 이루다 後期에 이르러서는 왜로의 食糧收奪과 이에 대항하여 鬭爭하는 小作爭議 과정속에서 消化器疾病(20.5%)으로 死亡에 이른 行旅人이 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行旅死亡人의 原因疾患가운데는 精神, 神經疾患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初期에 비하여 後期에 갈수록 死亡人의 수가 激增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적인 疾患別 分布에 있어서도 13.6%의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精神疾患의 原因이 柳<sup>37)</sup>는 大驚大恐의 七情과 飲食不足 및 外因에 의한 것이라 한 것으로 볼 때, 당시의 時代狀況이 이같이 많은 수의 行여인이 精神, 神經系 등의 疾患으로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더우기 Table VI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당시의 日本人 基準에 의한 우리 민족의 行旅 死亡人의 原因別 頻度數에서도 日人 男女對象에 비교하여 老衰로 인한 死亡以外에 全身病, 消化器病 및 精神, 神經系病의 分布에서도 당시의 社會的 病因이 이같은 行旅病人의 사망 疾患分布 추이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1933년부터 1942년에 이르기까지 行旅死亡者에 대한 地域別調査에서 보면, 死亡人이 京畿道가 5982名(전체의 16.7%)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지만 以外の 전국 각지에 고른 사망인의 分布樣相을 보이고 있다(Table V).

이는 나라잃은 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京畿道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行旅人 數의 增加 와 行旅死亡人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와 같이 왜로에 대항하여 義兵活動이 가장 치열하였던 1906년부터 나라잃은 시대의 後期인 1942년까지의 行旅人의 死亡原因은 全身病과 消化器疾患, 老衰 및 精神, 神經 系統의 疾患이 爲主임을 알 수 있었으며, 1933년 以後 地域別 分布에서도 全國의으로 行旅人의 死亡者가 分布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같은

背景에는 당시 社會가 왜로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時代의 狀況속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對抗하여 抗戰하는 民族史的 鬭爭過程 一面에서 行旅人의 存在意味를 推定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Table VII에 보는바와 같이, 地域別 우리민족의 行旅死亡人의 頻度數에 있어서는 日人에 비하여 全羅北道, 忠淸北道, 黃海道, 江原道에서의 빈도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니, 이같은 사실은 이 地域에서 抗日義兵活動이 가장 旺盛하였으며 熾烈하였다는 金<sup>35)</sup>의 記錄에 依據하여 볼 때 行旅人의 發生이 抗日鬭爭의 所產物이라 推定할 수 있었다.

Table VI 日本人 기준에 의한 우리 민족의 行旅死亡比 (疾患別)

기성	행여사망인															
	인	년	전신병	정신병	신경계병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운동기	피부기	비뇨기	노출	중독	신생물	각	
일인 대상	남	65	46.8	74.8	26.7	48.1	38	23.8	54.5	31.9	103	35.3	249.6	22.8	13.7	8
일인 대상	여	7.4	58.8	135.2	24.6	48.9	28.1	19.9	106.6	51	-	38.2	306.3	17.8	-	10

unit 일본인군에 대한 비례(%)

Table VII 일본인 기준에 의한 우리민족의 행여 사망비 (지역별)

기성	행여사망인															
	인	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일인 대상	남	26.3	83.4	52	394.7	130.8	591.4	43.6	81.7	44.7	341.3	41.3	132.3	282.7	58.3	34.8
일인 대상	여	25.5	88.4	64.9	348	96.5	-	-	188.2	45.4	34.7	49.1	228	103.2	129.3	18.6

Table VIII 일본인 기준에 의한 우리민족의 구호중 사망비(질환별)

기성	구호중 사망															
	인	년	전신병	정신병	신경계병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운동기	피부기	비뇨기	노출	중독	신생물	각	
일인 대상	남	5.7	9.6	13.6	5.6	10.7	12.0	5.8	11.8	8.1	12.1	12.3	56.4	7.7	2.8	2.9
일인 대상	여	4.9	11.0	16.0	4.5	13.3	9.3	7.4	22.6	-	-	6.6	17.2	6.3	-	3.0

Table IX 日本人 기준에 의한 우리민족의 救護中 사망비(지역별)

기성	구호중 사망															
	인	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일인 대상	남	41.4	16	9.9	4.9	14.2	59.1	38.3	27.3	6.8	104	23.4	77.3	85.4	31.5	19.5
일인 대상	여	41.4	17.7	11.8	-	17	161	26	218	5.1	-	-	-	-	10.5	5.2

## V. 結 論

1906년부터 1942년까지의 統計年報를 중심으로 行旅人의 死亡에 대한 疾患別, 地域別 分類를 통하여 日帝 時代의 行旅人에 대한 研究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1906년부터 1912년까지의 行旅人의 사망통계는 일관성이 없어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行旅人의 사망원인으로는 全身病이 전체의 25.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3. 行旅人의 사망원인 가운데 精神, 神經系統 疾患은 15.0%를 나타냈다.
4. 精神, 神經系統의 질병 발생률은 日本人에 비해 精神病은 남자가 26.7배, 여자가 24.6배 더 많았으며 神經系病은 남자가 48.1배, 여자가 48.9배 더 많았다.

5. 地域別 發生率은 日本人에 비해 男女 모두 全羅 北道, 忠清北道, 黃海道, 江原道 順으로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일제치하에서 行旅人은 당시의 시대적 病因의 산물이며 行旅死亡人의 原因疾患 또한 시대상과 有關되어 文獻的 근거에 附合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精神, 神經系 疾病에 의한 行旅人의 死亡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研究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대판의국어대; 조선어 대사전, 협려사, pp. 21-42 1988
2. 久保喜代: 조선에 있어서 정신병에 관한 연구, 신경학잡지
3. 르네듀브: 적응하는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p.132 1987
4. 김정언의 2人: 정신자 행여병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고의대논총, 19(2) 1982
5. 한선호 이병윤: 비행청소년의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고의대논총, 16(1)1979
6. 李九榮: 호의 의병사적, 제천문화원, p.737 1994
7.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 열림원, p.136 1994
8. 보건사회부, 보건통계년보, pp.326-353 1965
9. 오웅진: 꽃동네회, 68:9 1995
10. 총독부, 통계년보, 통감부 1906
11. 조선어 대사전
12. 총무처, 행정용어 순화편람, p.3351992
13. 금강경(金剛經)
14. 대한한사전pp.389-909
15. 柳聖泰: 정도전의 佛氏雜辯故, 원광대학원, 3:9 1989
16.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고문사 p.34. 1995
17. 임동권: 한국민요집, 동국문화사 pp.227-229 1989
18. 石南周: 이조말기간 1925년까지의 조선인구 移住計
19. 삼장법사: 金剛般若波羅蜜茶, 法會因由分第一
20. 유승원 : 일제치하의 전국수형 정신과 환자에 관한 역사적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1995

21. 지복영 :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문학과 지성사, p38, 49, 195 1995
22.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사언어연구소 : 조선말 소사전, 북경 민족출판사 1980
23. 이상근 : 한인로령이주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p74, 85, 131, 209 1994
24. 문순옥 : 날개없는새 짝이되어, 청산, p.198 1994
25. 폴시브래그 : 신경력 증진법: 홍익재 pp.17-18 1990
26. 한국독립유공자협회 :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고문사p34, 35 1994
27. WALTER B.CANNON : The WISDOM of the Body, W.W. Norton & Company Inc.1967
28. 여중동 : 한국역사용어, 시사문화사, p.8 1986
29. 宋熙植 : 存在로부터의 해방, 비봉출판사. p.262 1991
30. 관보
31. 선영들의 유복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p.37, 61, 63, 79, 84, 85, 92 1983
32. 강원 항일운동사 p.155
33. 편찬회 : 독립운동사 pp.526-527
34. 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pp.110-120 1992
35. 山口一 : 朝鮮制度法規 朝鮮圖書(株), p.1315 1939
36. 김안국의 위음; 동아시아 연표, 청년사 p.172 1992
37. 류희영: 동의정신과학, 남산당, p.46 1992
38. 제천군지, p.274
40. 국방부 의병항쟁사, p.329, pp.336-337

=ABSTRACT=

A study about Vagrants ' death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Geu Gin Choi, Yeong Soo Lyu,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 Kwang University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region and kinds of illness about the death of vagrants from 1906 to

1942, the results on the study of vagrant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re followings.

1. The statistics about the death of vagrants from 1906 to 1912 have no coherence. So this study excludes that time.

2. A mental disease as a cause of death of vagrants is 25.4%. It shows the highest ratio of all the other diseases.

3. A mental, nervous disease among the cause of vagrants' death is 15%.

4. On outbreak ratio of mental disease is 26.7 times in men, 24.6 times in women higher, and on

nervous disease 48.1 times in man, 48.9 times in woman higher than Japanese.

5. Regional outbreak ratio is higher than Japan. The orders are Chonlabukdo, Chungcheongbukdo, Hwanghaedo, Kangwondo.

The above results show that vagrant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s produced by cause of disease. The cause of vagrants' death is also related to social situation at that times. And it accord with the basis of documents. The relation between the death of vagrants and mental, nervous disease are considered to be studied in detail .